

운명이 뭔데 내 인생 망쳐?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18 사주팔자 바꾸기

대학 못 갈까?

외동딸인 M양은 큰 어려움 없이 응석부리며 자랐다. 성격은 중간정도였다.

그런데 고교 2학년 어느 날 어머니가 "애야, 이걸 어찌하면 좋으니. 너 나하고 절에 좀 가자"며 "이제 고등학교도 되고 해서 앞으로 진로가 어떨지 물어보러 갔는데" 사주 잘 본다든 사람 말이, "잘못 타고 낫구면. 힘들겠어. 대학은 포기해.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어. 기생팔자야" 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믿기 어려워 유명하다는 세 군데를 더 갔으나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M양은 귀를 의심했다.

"뭐? 내가 대학을 못 간다고? 기생?"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했다. 성격은 중간 이상이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소 절에 다니며 스님이 운명 같은 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같이 가지는 것이었다.

사정을 들은 스님은 "부처님법을 모르면 사주팔자에 끌려 다니겠지만 부처님법 앞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하였다.

"스님, 전 차라리 죽어버릴래요. 대학도 못가고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하면서 울었다. "원래 사주 같은 건 고정된 게 아니다. 그걸 알고 마음을 바꾸어 살면 미래도 달라지는 거야."

"그레, 운명이 있다고 하자. 어디에 있나?" "글쎄, 제 마음에 있겠지요." "그럼 바뀌! 잘못 썼으

면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바뀌요?" "내 운명이나 내가 바꾸지 그럼 누가 바꾸나?"

스님은 두 가지를 하라고 했다. 가슴 속에 백지가 있다고 상상하라고 했다. 거기에 싶은 내용들이 적혀있다. 다시 써야 한다.

"난 공부한다. 꼭 대학에 간다!" "난 공부를 좋아한다. 공부하고 싶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학생이 되어 공부하는 모습을 마음에 다시 입력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모든 사람에게 위하는 마음을 내라는 것이었다.

대학 못 가고 '기생 팔자' 타고난 딸

스님 도움 받아 마음입력 변경 노력 타고난 사주 바꾸고 희망대학 진학

운명 바꾸기 작전

성적이 중간정도였던 M양은 그 때부터 오기가 났다. 오직 마음의 변화를 생각하고 거기에 글씨도 쓰고 모습도 그렸다. "내가 살려면 바뀌어야" 하고 이를 악물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내라고 해서 우선 부모님부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별로 부모님 생각을 못하였었다. 처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학교에서도 사실 M양은 공주병 걸렸다는 말을 들곤 했다.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했다.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단점을 잡아 틀 틀거리던 습관을 조금씩 고쳐갔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던지 포기하고 싶었다.

스님께 가서 "스님, 안하던 마음을 내리니 너무 안 돼요.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스님은 무릎을 치시며 "바로 그거야. 딴 사람이 돼야 운명을 바꾸지, 그럼 노력도 없이 어떻게 바꾸나? 내 팔자가 있다면 내가 마음을 바꾸면 딴 사람이 되면 될 것 아닌가. 사람이 바뀌니 팔자도 바뀌는 것 아닌가."

새 물로 바꾸어 써라

M양은 "사실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한다.

고3생활은 마음 입력 바꾸기와 따뜻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다고 한다. 성격도 꾸준히 올라갔다. 현재 가고 싶은 여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주팔자라고요? 그런 거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예요!" M양은 목소리를 높이며 단호하게 말한다.

스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마음의 원리를 몰랐다면 그 때 좌절하여 학교생활이 불안하고 지옥 같았을 것 같다고 한다.

"제가 사실 정말 딴 사람이 되었거든요. 팔자가 안 바뀔 수 없었을 걸요?"하며 미소 짓는 얼굴이 파스하얗게 가득하다. 우주에 고정된 것은 없다.

"구름물이 나오면 새물로 바꾸어 써라" 는 말씀처럼 마음의 부정적 입력을 긍정적인 새 입력으로 바꾸어 삶의 주인이 된 것이다.

■ 황수경(동국대 선행과 강사)

산영게시판

- **해남 미항사 '참사랑의 향기'**-해남 미항사가 매달 7~18일간 진행하는 '참 나를 찾아가는' 7~18일간의 출가수행-2007 참사랑의 향기 가 7월에는 21~28일 열린다. 참선, 묵언, 오후복식, 수행문단, 수행체계 범문, 다도 등을 통해 출가수행 체험을 할 수 있다. (061)533-3621
- **부산 범어사 고승대법회-부산 범어사**가 7월 12일 오전 10시 살법전에서 지방 백일회 및 고승대법회 초재를 봉행한다. 초재에서는 정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이 법문한다. 10월 11일까지 열리는 고승대법회에는 순천 송광사 조계총림법장 보성 스님, 평창 활정사 화주 현해 스님, 보은 범주사 화주 혜정 스님 등이 법문할 예정이다. (051)508-3122

- **전등사 템플스테이**-강화 전등사가 7월 2일 시작한 3박4일간의 불교전문문화체험 템플스테이가 인가다. 8월 16일까지 계속되는 템플스테이는 7월 16~19일, 23~26일, 30일~8월 2일, 6~9일, 13~16일의 일정이 준비되어 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전통예절, 다도, 한자공예, 서각, 인경, 단청, 생태교실, 천연염색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032)937-0025
- **부산 여어선원 화엄산림 천일기도 대법회**-부산 여어선원이 매달 음력 초사흘마다 봉행하는 53년 지시 초정 화엄산림 법회의 아홉 번째 법단이 7월 16일 오전 10시 부산불교회관 8층 대법당에서 열린다. 이번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051)853-5486

- **강화국제연등원 청소년 영어캠프**-강화국제연등원원 7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청소년 영어 캠프를 운영한다. 아베라 기도, 참선, 발우공양, 기본교리, 300배 참회기도, 수계 의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1차 7월 23~26일, 2차 30일~8월 2일, 3차 6~9일, 4차 13~16일이다. (032)937-7033

- **실상사 불교문화체험 '산색'**-남원 실상사가 7월 14~15일 실상사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산색'을 마련했다. 실상사를 둘러보며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063)636-3031



동산법문, 선종교단 전통 수립 (東山法門)

<유마경> '방편품'에 '일체제생(一切治生)'을 설하고 있다. 여기서는 유마거사의 삶에서 세간과 출세간의 중도적 생활 그대로가 도업(道業)을 성취하는 장으로 발전되어지고 있다. 유마거사는 "속인으로 백의를 몸에 걸치고도 사문의 수행을 완수하며, 재가에 있으면서도 삼계에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하였다. 처자가 있으면서도 항상 청정한 법행으로 어른들과 어린이를 가르치며, 모든 생명의 경영(一切治生)이 순조로워 세속적인 이익을 얻지만 그것에 기뻐하지 않았다."(<維摩經> '方便品')

이러한 대승경전의 '지생산업'의 사상은 대승계율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광경> '39경(經)제'에는 "불자들은 언제나 일체중생을 교화해야 한다. 승방을 건립하고 산림에 전담(田畵)을 마련하고 불탑을 세우며, 동하안거(冬夏安)에는 좌선할 수 있는 처소와 불도를 닦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담을 경작하는 노동과 안거수행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승경전의 노동생산업과 중국의 처생산업이 일상의 수행과 결합하여 당나라 시대의 삼계도(三階道)가 탄생하게 된다. 삼계도의 창시자 신행(信行)은 노동생산과 빈민구제를 통하여 노동과 수행을 일치시키는 수행공동체적 결사(結社)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불교의 노동과 수행을 일치시키는 정신이 기반이 되어 선종의 선종겸수(禪農兼修)의 선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3종교 선종의 노동-(1) 백장청규와 보청(備講)

중국 선종에서 맨 처음 교단을 형성하고 교단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노동 작무를 일상생활에 도입한 것이 동산법문(東山法門)이다. 동산법문을 개창한 도선(道宣)과 그를 계승한 흥인(弘忍)은 기주 황매의 쌍봉산(雙峰山)을 근본도량으로 하여 500여 대승이 운집하여 노동과 수행을 겸하는 수행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종교단은 노동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종에서 이미 운집 대승이 몇 백을 넘어서면 단월들의 시주만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흥인은 "낮에는 노동에 열중하며 대중을 공양하고 밤에는 좌선하기를 새벽까지 하였으며, 일찍이 게으름을 피운 일이 없었으며 여러 해를 지극히 열중하였다"(<傳法寶記> '弘忍章' <歷代法寶記> '弘忍章' <大正藏> 제51권, p182.)라고 전한다. 그가 일찍이 수행자가 산림 가운데 주거하는 이유에 대해 "심산유곡에서 자란 나무가 낮과 도끼에 베임을 피해서 큰 나무로 자라서 장차 동량(棟梁)으로

크게 쓰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여 선종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선종에서 수행함에 반드시 전담을 개간하여 농경에 힘써야 함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겠다.

이율려 <염송설화>에는 흥인이 전생에 선종에서 평생 소나무를 심으면서 수행한 도인이라 하여 그 별명이 '재송도인(栽松道人)'이라 불렸음을 알려주고 있다.

선종의 전통이 수립되어, 신수(神秀)와 혜능(慧能)의 남북종선(南北宗禪)에서는 이미 체질화 되어진 것 같다. 신수가 흥인의 문하에서 나무하고 물 같은 운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혜능 역시 행자시절 8개월간 방앗간에서 중노동을 하였으며, 수법(受法) 이후 16년간 숨어서 행각하는 동안 온갖 갖은 일로 연명하였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혜능을 평하여 말하기를,

울고 그림(提拏)을 논하는 장(場)에 함구하고, 색과 공의 경계를 마음에 융합시켰다. 노동에 힘써 대

노동-좌선 병행 자급자족 집단 형성

정치 중심 벗어나 서민 대중 속으로

중을 공양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사위의(四威儀: 行住坐臥)가 모두 도량이고, 삼업(三業: 身口意)을 모두 불사로 삼았다.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들어 아니며(動靜不二), 내지 말함과 침묵함이 항상 하나이었다(語默恒一).(<楞伽師資記> <大正藏> 제85권, p 1289p.)

혜능의 남종선은 정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므로 국가의 원조나 관료 및 백성들의 보시를 최소화하며 자율적이며 자주적인 노동과 청빈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즉 혜능의 남종교단은 왕공 사대부의 후원으로 교단을 유지했다하기 보다는 서민 민중들과 함께 일하며 수행하는 대중불교적 면모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러한 남종선의 가풍은 훗날 생활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생활인 생활선(生活禪)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혜능 남종선의 가풍은 조용한 곳에 앉아서 좌선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눈발에서 일하며 일체 경계를 대하는 가운데서 경계에 흔들림이 없는 동정일여(動靜一如)의 경지를 역설하고 있다. <단경>에 "밖으로 일체 경계에 걸림이 없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坐)라 하고, 자성이 공함을 보아 어지럽지 않음이 선(禪)이라고 좌선을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고요한 가운데 고요한 것은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요, 움직이는 가운데 고요한 것이 진정으로 고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계속)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는데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변호사 강영화 · 김기현 · 김택선 합장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1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www.sungjongsa.co.kr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범종 밀랍주조공법으로 완성

8150관 초대형 범종 탄생

광주 민주의 종은 8150관(약 31ton)의 국내 최대 범종으로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광주 민주의 종 김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생활기체설계공정연구소로부터 「종의 모양이 매우 아름답게 주조되었으며, 종 표면 및 몸체에는 주조결함이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 또한 민주의 종의 진동, 음향을 분석한 결과 기본 고유진동수는 62.625Hz(low), 62.8125Hz(high)로 측정되었으며 이상적인 당좌위치와 실제 당좌 위치가 잘 일치하여 당좌 가늠자 맥놀이도 잘 일어나,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주조 되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제작사에서 이제 세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저희 성종사는 오늘날 인류 최고의 범종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지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s@hotmail.com
 ● 대 표: 범산 원장식(중요문화유산 제112호, 대한민국 명장)

광주 민주의 종(국내 최대)
(높이:4.2m, 직경:2.5m, 중량:8150관)